

# 연말 공직기강 확립 나서

### 도교육청, 30일까지 특별점검... 소속 기관·전체 공립학교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연말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음수수 직무해태 등 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 전체로, 직속기관·지역교육지원청·고등학교·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공립 유·초·중학교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세부 계획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복무 위반 사례 △공직자 품위 훼손 행위 사례 △공무원 행동강령 행동기준 준수 여부 △음주운전 예방교육 △소극적 업무처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 준

비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연말을 맞아 모임 등으로 자칫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는 연말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9일 5층 접견실에서 2022년 크리스마스 썸 증정식을 가졌다

## “결핵예방·퇴치 사업 지속 협력”

### 도교육청, 크리스마스 썸 증정식... 학생 행복나눔 지원에 활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5층 접견실에서 2022년 크리스마스 썸 증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썸 증정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입환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지회장 마대영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썸 주제는 ‘꿈을 향해! 세계를 향해! 손흥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담아 제작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진행한 크리스마스 썸 모금액은 학생 행복나눔 지원, 결핵환자 및 결핵 후유증 환자 보호시설 지원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대한결핵협회의 결핵 퇴치를 위한 봉사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대상 노동조합·연금 이해 연수

### 전북대학교 조재혁 교수 연구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활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전주 치명자산상지 세계평화의전당에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과 연금 이해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미래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소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노동관계 규율 법체계 △세계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사례 △공무원연금 기초이해 △공무원 연금 바로 알기 등이다. 특히 이날 최은영 노동조합교육활동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펼쳤다. 최 활동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부터 연금관련 정부의 공세 및 책임, 향후 개정 및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하며 지방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원창 행정과장은 “공무원연금 개정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수급 대상자인 공무원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 16일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한국마사회 장수목적, 전주지역자활센터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다회용기 대여·세척 체계 구축

### 전주대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한국마사회 장수목적

### 전주지역자활센터와 3자간 협약 체결... 사회적 가치 실현

전주대학교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 16일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한국마사회 장수목적, 전주지역자활센터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마사회 장수목적은 ESG 경영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화 그린 뉴딜을 선도하면서 다회용기 사용문화 정착 지원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고, 전주지역자활센터는 다회용기를 세척·

살균·보관·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추진하여 다회용기 사용문화 정착에 노력한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렌탈·세척 체계 구축사업’ 의제 실행과 협력 기관 연계·홍보 등을 통해 지역문제해결에 협력기로 약속했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한동승 집행위원장은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육문화회관, 초 3~6학년 대상 ‘겨울 독서교실’ 운영

### 전주교육문화회관은 내년 1월 9~20일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은 ‘반짝이는 나, 더불어 사는 우리’라는 주제로 인성 8대 덕목과 관련된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지원한다. 운영 내용으로는 △인성 교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책 읽기 △생각의 폭을 넓히는 독후감강문 작성하기 △협력게임 형식의 책놀이 △미션게임 형식의 보드게임 △쇼도 레시피북 만들기 △다육 테라리움 만들기 등이다. 특히 5~6학년의 경우 창의성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신문활용교육(NIE)을 접목해 학생들이 현대사회에 필요한 능동적·비판적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조재혁 교수

## 사물인터넷 공격탐지 인공지능 모델 개발

### 전북대 조재혁 교수 연구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활용

전북대학교 조재혁 교수 연구팀(소프트웨어공학과 최선오 교수)은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전송 표준인 MQTT(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IoT 환경에서 일어나는 공격들을 시퀀스 투 시퀀스(Sequence to Sequence) 모델을 활용해 공격 탐지의 정확도 향상을 가져왔다고 19일 전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언어 신경망으로 순환해 계산하는 특징과 인코더와 디코더를 가지는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모델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격 탐지를 위한 참신한 특징 추출 방법을 SCIE 저널에 발표했다. /장은성 기자

이에 따르면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은 MQTT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특징이 포함돼 있어 정확도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재혁 교수팀은 새로운 특징 추출 방법을 통해 5개 특징을 선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Seq2Seq 모델을 활용했다. 그 결과, 대표적 공격들을 분류하는데 성공해 공격 탐지 성능의 향상을 보여줬다. 특히, 이 연구는 패킷 캡처 파일(packet capture, pcap)을 이용해 공격을 분석하고 특징을 추출했다. 향후에는 IoT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MQTT 공격에 대해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공격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탐지로 효과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호원대 간호학과

### 간호교육 5년 인증 획득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22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 관리하기 위해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등이 국가, 사회, 간호 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인정하는 제도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비전과 운영체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과 설비 △교육성과 등 총 6개 평가영역 등으로 구성됐다.

호원대 간호학과는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의해 간호교육인증평가를 받고 5년 인증을받았다. 인증기간은 내년 6월 11일부터 2028년 6월 10일까지다.

호원대학교 간호학과는 2009년 3월 ‘보람있는 인생, 참된 인간상’ 자립하는 사람’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인성과 실용의 조화를 갖춘 전문직 간호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경기지역 및 전북지역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상실습과 연계한 취업을 통해 전북지역 간호인재양성의 요인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2023년 6월 10일까지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호원대 간호학과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양(보건교과) 양성과정을 승인받은 바 있어 간호교육의 품질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산=김필곤 기자

## 군산대 재학생, CED2022서

### 금 1·은 3·동 4개 수상

국제창의적공공학설계경진대회(CEDC 2022)가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CEDC는 코로나 확산으로 3년째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중일 각국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의 군산대학교, 충북대학교, 인제대학교 학생들과 일본의 야마구치대학, 중국의 장수대학, 대련공과대학 학생이 다수 참여하였고, 캡스톤디자인 학습과정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참가국 교수들과 전문가에게 평가받으며, 아이디어를 정련하고 재융합해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군산대학교는 금상 1개, 은상 3개, 동상 4개를 수상하는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금상은 시네버스 손잡이 기능을 확장시킨 작품을 선보인 융합기술창업학과와 양지민, 모찬식, 석지선, 김예은 안두를 박진하 학생팀(지도교수 김현철)이 수상했다.

은상은 깨끗하고 안전한 드립박스 아이디어를 선보인 전기공학과 박태훈, 이주원 학생팀(지도교수 이정현), 도시의 도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쓰레기통 아이디어를 선보인 산업디자인학과-환경공학과 연합팀인 박신아, 박소원, 오연민, 하지만, 노선경, 정진기 학생팀(지도교수 이지현), 300mm 반도체웨이퍼 생산장치 사용실력을 가상현실기술로 구현해 선보인 신소재공학과 조원재, 김혜원 학생팀(지도교수 주정훈)이 수상했다.

이밖에도 동상 수상자는 IT정보저공학과의 김주하, 정희수 학생팀(지도교수 김성호), 환경공학과 권민성, 김다정, 김예진, 정승원 학생팀(지도교수 김강주), 조선해양공학과 안재현, 최건우, 김민성, 박주영, 유홍희(지도교수 정한구), 기계공학부의 이종훈, 차승준, 박세영, 윤영진 학생팀(지도교수 박현범) 등이다.

이 행사를 준비한 군산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김강주 교수는 “CEDC는 우리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행사로, 이를 통해 군산대 학생들의 역량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훌륭한 지도를 해주신 교수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에게 대한 시상식은 22일 군산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진행된다. /권산=김필곤 기자

## 탄소산업 인재양성 위한

## 석박사 교육과정 공동 개발

### 전북대-벤처기업협회

###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사)벤처기업협회 전북협회와 탄소복합재 분야 산학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탄소복합재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총괄책임자 오명준)을 통해 탄소복합재 기술 국산화·고도화를 위한 산업기술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탄소융복합재료공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6개사의 탄소복합재 분야 우수 기업과의 취업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사)벤처기업협회는 혁신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의 벤처생태계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344개사의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전



북협회(협회장 이인호)는 지난 7월 김성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북벤처 개인투자조합 1호 결성식을 가진 바 있다. 사업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오명준 교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탄소복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배출 인재들이 탄소복합재 기술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APS, 전국 정보보호동아리 ‘우수’

우석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동아리 APS가 2022년 대학정보보호동아리 지인사업 평가에서 우수 동아리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 20개 정보보호 동아리를 선정해 전문 실습교육과 연구 활동, 취업연계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우석대 APS는 악성코드 탐지모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과 정보보호 콘퍼런스 및 세미나, 교육 등에 참여해 왔다. 특히, 프로젝트 수행 중에도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과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킹 시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장은성 기자